

석불상의 영기좌는 양감으로 승부한다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연화좌(蓮華座)→영기좌(靈氣座) ㉔



석불상의 영기좌는 양감으로 승부한다. 그러면 연꽃이 왜 연꽃이 아닌지 석불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불상 조각의 연꽃대좌를 보면 단판(單瓣)이 하나인 것: 瓣(꽃부리를 이루고 있는 낱날의 조각. 꽃잎을 말한다)이거나 복판(複瓣: 잎이 둘인 것)이라는 용어로 가리키는 연꽃잎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계에서는 복판을 보면 꽃잎이 하나인데도 두 꽃잎이란 복판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조형미술에서 꽃잎이 하나인데 하나의 불룩한 양감 있는 타원체가 있으면 단판(單瓣)이라 부르고, 하나의 꽃잎에 두 개의 양감 있는 타원체가 있으면 복판(複瓣)이라고 부른다. 이들 단판과 복판의 용어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림 1)

그러므로 단판(單瓣)이나 복판(複瓣)은 일본인이 만든 옳지 않은 용어를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따르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판이나 복판의 조형 역시 현실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영기가 가득 찬 영화(靈化: spiritualization: 정신적으로 승화된 현상을 말한다)된 영기꽃이지 연꽃이 아니다.

삼국시대에는 양감이 있는 불룩한 타원체가 하나인 것이 널리 유행하였다. 그러나 하나 있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게 보여서인지 삼국시대 말부터 타원체가 두 개 있는 것을 몇 작품에 표현하다가 통일신라시대부터 하나의 옆에 양감 있는 타원체가 두 개 있는 조형을 선호해왔다. 흔히 연화좌의 연꽃은 진흙 속에 나서도

물들지 않는 덕이 있으므로 불보살의 앉는 자리를 삼는다고 말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빛나간 세속의 설명인지 알 수 있다. 여래나 보살이 앉는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 존재로 홀연히 나타나 중생을 구원하게끔 하는 자리이므로, 옛 장인들은 영기좌의 조형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앞서 금동불의 영기좌를 간단히 다루었지만, 이번에는 양감으로 영기꽃을 표현하려 한 석불(石佛)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석불인 경우에는 20센티 내외의 작은 금동불 같은 불상을 만들 수 없으며 대체로 등신대(等身大)나 장육불(丈六佛) 즉, 여래의 키는 1丈6尺(약 5미터)로 만들도록 규정하여 놓았다. 보통 사람 키의 두 배라고 하나 그런 기록도 믿기 어렵다. 2미터 50센티미터 키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8이라는 무한한 상징을 띤 숫자의 두 배를 삼은 것이 16 즉 1丈6尺이 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큰 불상을 만드는 데에는 화강암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재료이다. 화강암의 입자가 커서 정(釘)으로 치면 파편으로 부분이 날라 가기 쉬우므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정교한 조각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옛 장인들은 양감(量感)으로 승부를 걸었으므로 여기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양식이 창조되었던 것이다. 석굴암 본존은 그렇게 하여 탄생하였다.

헬레니즘기의 대표작 '라오콘 군상'은 거칠고, 격렬하며 강렬한 드라마틱한 인상을

주는 헬레니즘기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내는데, 라오콘이 그의 아들들과 죽음을 앞두고 뱀과 맞서 싸우는 고통의 순간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다. 18세기 독일 미술헌자 빙켈만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이 표현되어 있으며, 육체의 고통을 정신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의 이상이 라고, 그러나 작품을 실제로 보면 빙켈만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작품의 양식과 해석은 전혀 맞지 않다.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 '역동적이지만 번잡하고 시끄럽다' 빙켈만이 한 말은 오히려 석굴암의 건축과 조각에 걸 맞는다. 석굴암의 예술이야말로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8세기 중엽의 석굴암 본존의 영기좌는 매우 단순하다.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상대와 하대의 영기꽃잎이 같다. 즉 '하나의 옆 모양마다에 하나의 양감이 풍부한 타원체'를 넣어서 이러한 영기좌에서 석굴암의 본존이 탄생하는 것이다. 9세기 때의 비로자나 석불에 이르면 영기좌의 하대 영기꽃은 단순하다. (그림 3)

하대(下臺)의 영기꽃은 '하나의 꽃잎 모양에 두 개의 양감이 조금 덜한 타원체'가 있으므로 학계에서 말하는 복판(複瓣: 두 꽃잎)은 옳바르지 않다.

상대(上臺)의 복잡한 영기꽃과, 영기꽃의 실상(實相)은 다음 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그림 2-1 석가어래 본존



그림 2-2 본존 영기좌 전체



그림 2-3 영기좌 부분, 한 개의 꽃잎에 한 개의 타원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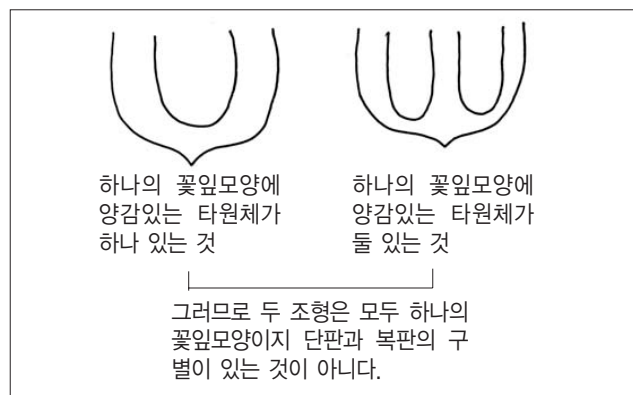


그림 1 단판과 복판은 옳지 못한 용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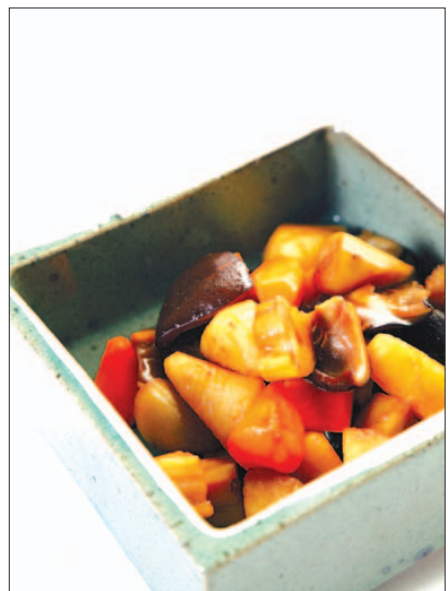


그림 3 비로자나불 영기좌, 통일신라 9세기. 하대의 영기꽃 한 잎에 두 개의 타원체가 있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藥 이 되는 사찰음식

찾물로 뿌리채소의 맛 살려요



황차 뿌리채소 곤약조림
△재료(4인 기준)
○ 우엉 1뿌리, 연근 100g, 마 100g, 당근 50g, 표고버섯 3장, 곤약 50g
○ 조림장
황차우린물 4컵, 국간장 2큰술, 간장 2큰술, 조청 2큰술, 술잎 효소 2큰술, 참기름 1작은술

△만드는 법
① 우엉은 칼등으로 껍질을 벗긴 후 2cm 정도의 길이로 다각형 썰기한다.
② 연근, 마, 당근은 사방 2cm 정도의 크기로 썰고 표고버섯은 4등분 한다.
③ 곤약은 사방 2cm 정도의 크기로 썰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구 준비

한다.
④ 냄비에 황차우린물을 넣고 우엉, 연근을 넣어 10분 정도 부드럽게 삶은 후 마와 당근, 곤약, 표고버섯을 넣고 양념장을 넣어 부드럽게 졸여낸다.

잡채 소스의 더덕 샐러드
△재료(4인 기준)
○ 깐 더덕 200g, 소금물 약간
○ 배즙 5큰술, 매실청 2큰술, 잣가루 5큰술, 소금 1/3작은술, 흑임자 2작은술

△만드는 법
① 더덕은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저민 후 밀방망이로 밀어 손으로 가늘게 찢는다.
② 잘게 찢은 더덕은 엷은 소금물에 살짝



담궈다가 물기를 꼭 짰다.
③ 곱게 갈은 잣가루에 배즙과 매실청, 소금을 넣어 골고루 잘 섞는다.
④ 더덕에 소스를 넣고 버블린 후 흑임자를 넣어 한번 더 버무려 담는다.

섬유질 풍부한 더덕 기관지에 좋아

우엉은 셀룰로오스나 리그닌 같은 식이 섬유가 풍부해서 정장작용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동맥경화를 막고, 식이섬유는 장내 발암 물질을 흡착하여 대장암 예방에 좋고, 이눌린은 간장 기능을 강화하고 이노 작용과 혈당치 저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우엉에는 다양한 약효와 이용법이 있는데 고기를 먹고 나서 생기는 식중독에는 우엉을 달여 마시면 효과가 있으며 벌레 쓰인데, 딱피, 부스럼 등에는 뿌리와 잎을 간 즙을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있다.

특유의 향을 살리는 요리를 하고 싶을 때는 우엉을 기름에 볶아서 사용하게 되면 단맛이 증가하고 풍미가 더욱 좋아지게 된다. 특히 우엉의 감칠맛은 껍질에 있기 때문에 흑이 묽은 것을 구입하여 표면만 살짝 씻거나 칼등으로 살짝 긁어내는 정도로 한다.

뿌리 채소조림을 할 경우 일반 다시마 국물을 사용할 경우는 감칠맛이 있어 좋고 황차 등 찾물을 우려 이용하게 되면 담백하면서도 특유의 향을 모두 살릴 수 있어 좋다.

더덕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내의 정장 작용을 촉진시켜 배변을 좋게 하고 혈장 콜레스테롤의 수준을 낮추고 혈당을 저하시키며 수은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무기물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며, 사포닌과 이눌린 등의 특수 성분은 폐와 신장을 보호하는데 한방에서는 폐기능을 향상시키는 기관지의 보약이라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더덕으로 샐러드를 만들 경우는 더덕의 씹스러운 맛을 살리는 것이 좋으므로 소금물에 오래 담가 두지 않도록 하며 절량보다는 맛이 부드러운 배즙을 넉넉히 넣어주는 것이 좋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불교종합쇼핑몰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